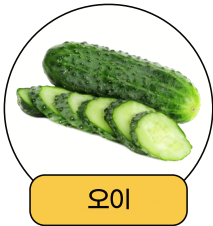


● 동반식물 연결하기 ●

서로 도움을 주는 공생관계로 함께 심으면 해충의 접근을 막으며 더욱 잘 자라는 동반식물을 연결해볼까요?
생활정원에 있는 안내판을 찾아 정답을 확인해요!



오이 --- 보리지

고추 --- 메리골드

상추 --- 제라늄

토마토 --- 페퍼민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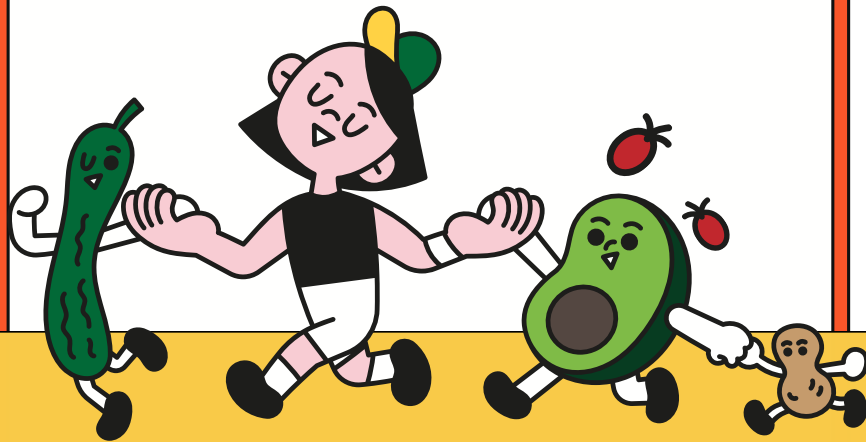
나에게 동반식물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?

엄마아빠. 엄마는 여름에 모기를 잘 잡아주
시고 아빠는 맛있는 요리를 해주신다.

국립세종수목원

생활정원, 함께 놀자!

식물과 함께 떠나는 생활정원 산책



이름 : _____

● 식물의 기관 ●

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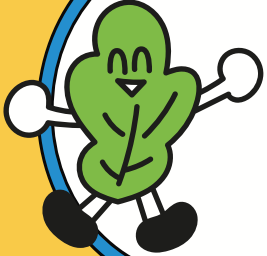
뿌리는 식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물과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. 뿌리는 주로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없어요. 식물의 뿌리의 모양은 곧은 뿌리의 당근이나 덩이뿌리의 고구마처럼 다양한 생김새가 있어요.



☞ 당근, 고구마, 무

뿌리를 이용하는 식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

잎



잎은 빛·이산화탄소·물을 이용하여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을 해요. 잎에서 만든 영양분은 열매나 줄기, 뿌리 등으로 운반되어 사용돼요. 또한 잎은 물을 기공 밖으로 내보내는 증산작용도 하고 있어요.

☞ 상추, 깎잎, 루꼴라

잎을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무엇이 있을까요?

열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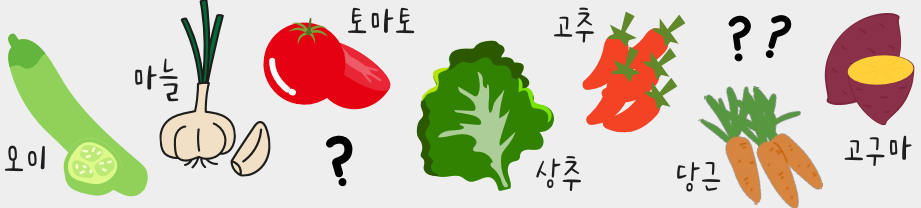
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지고 나면 열매를 맺어요. 열매의 과육은 어린 씨를 보호하며 씨가 익으면 퍼트리는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. 씨를 퍼트리는 방법은 열매의 종류에 따라 바람·물·동물의 배설물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.



☞ 토마토, 오이, 고추

열매를 먹을 수 있는 식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

● 나만의 텃밭 가꾸기 ●



우리가 즐겨 먹는 토마토는 과일일까요, 채소일까요?
과일과 채소의 기준에 대해 생각하며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아요!

흩어져있는 식물을 텃밭에 그리며 가꿔보아요